

# 외발자전거·마술...서커스야 연극이야

광주시립극단 '멍키열전' 연습현장  
원숭이 시선서 인간세상 비판·풍자  
손오공 등 세계 고전 원숭이 등장  
6~8일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

카다리 목발에 외발 자전거, 2단 옆구르기과 상모 돌리기, 마술도 등장한다. 열몇 보편 서커스장 같지만 연극이 벌어지는 무대다.

최근 찾은 광주시립극단 정기공연 '멍키열전' 연습 현장은 예나지도 가득했다. 파행을 딛고 1년 5개월 만에 작품을 무대에 올리는 단원들은 1시간 40분 내내 치열한 자세로 임했다. 시립극단은 오는 6~8일(목·금·토요일 오후 7시 30분, 토요일 오후 4시·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연극 '멍키열전'을 무대에 올린다.

이 연극은 원숭이의 시선으로 인간세상을 향한 날선 비판과 풍자를 풀어냈다. 러시아 국립 슈우킨 연극대학 창설 100주년 기념공연으로 기획돼 지난 2014년 서울에서 초연된 뒤 지난해 대구시립극단도 공연을 했다.

나상만 시립극단 예술감독은 이번 연극의 극작·연출을 맡았다. 나 감독은 이번 연극에서 다양한 '불거리'를 내세운다. 출연진은 신체훈련전문의의 지도 아래 2개월 동안 원숭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훈련을 거듭했다. 분장 없이 연기만으로도 이들을 원숭이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충분했다. 뼈죽 나온 입과 굵은 등, 찜지락거리는 발가락은 영락없는 원숭이의 품새다. 배우들은 말을 하는 도중에도 원숭이처럼 설새없이 씹씹거리거나 몸을 흔드는 탓에 역할이 끝난 뒤에는 거친 숨을 몰아쉬기에 비했다. 인간과 원숭이를 순식간에 오가는 이들의 연기가 천연덕스럽다.

'멍키열전'에는 심사를 거쳐 선발된 8명의 배우와 중국 현지에서 공모한 2명의 배우가 출연한다. 러시아 슈우킨 연극대학을 나온 최유진이 '피터', 김고운이 '빠아트리체' 역할을 맡았으며, 서울과 광주에서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황성대, 이병덕,



광주시립극단이 6~8일 광주문화예회관에서 연극 '멍키열전'을 무대에 올린다. '멍키열전' 연습 모습.



'하누만' 역 최규웅

정일행, 김계남, 남재영, 최규웅이 출연한다. 중국배우들을 초청해 무예와 경극을 선보여 무대의 화려함을 더했다. 배우들은 각종 곡예와 무용, 악기 연주를 직접 소화했다. 혹독히 단련한 덕인지 제작각 취하는 몸짓 속에서도 질서가 느껴졌다.

극에는 세계 고전에 등장하는 원숭이들이 시공을 초월해 한자리에 모였다. 프란츠 카프카의 소설 '어느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에 나오는 침팬지 '피터'와 '서유기'의 '손오공', 인도의 서사시 '라마야나'의 '하누만' 등 6마

리의 원숭이가 나오고 단체 '신곡'의 '빠아트리체'는 서커스 단원 출신 소년로 등장한다. 원숭이 유랑극단이 겪는 각종 사건들로 극이 꾸며진다.

이들 원숭이는 화려한 '이력'을 지녔지만 인간과 별반 다르지 않게 행동한다. 극 중에는 사과 한쪽을 놓고 원숭이들이 아웅다웅 싸우는 장면이 나온다.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갈등을 상징하는 대목이다. 사과를 가진 원숭이에게 피터가 콧소리를 내며 "내 쪽으로 좀 던져봐"라고 말하자 주위에서 웃음이 터져나온다. 웃는 이유를 묻자 나상만 감독이 답했다. "아 이거요? 카프카 작품 속 피터는 지적인 원숭이인데요. 고정된 이미지를 벗고 살갑게 말해보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양탈을 부리네요"라고 말했다. 원숭이들이 각자 지닌 뚜렷한 개성은 극의 전개에 중요한 장치로 작용한다.

나상만 감독은 "배사대무초 노랫말을 비틀어 세월호의 비극을 노래하거나 한국의 전통 연희와 중국 경극을 도입해 이진 공연과 차별화를 꾀했다"며 "세상의 '갑질'과 폭력에 대한 저항의 메시지를 원숭이의 유쾌한 풍자로 깎집어 냈다"고 말했다. 전석 1만원(청소년 5000원). 문의 062-511-2759.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지난달 풍류회죽선방 공연 모습.

## 5년만에 복원 '광주향제줄풍류' 무대 오른다

풍류회죽선방, 내일 문화전당

반세기 동안 잊혀졌던 '광주향제줄풍류'가 5년 만에 복원돼 연주된다. 풍류음악을 발굴·복원하고 있는 '풍류회죽선방'이 오는 5일 오후 7시 30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극장2에서 연주회를 연다.

풍류회죽선방은 이번 공연에서 광주향제줄풍류를 복원해 무대에 올린다. 지난 2011년 20여 명이 모여 창단한 죽선방은 광주지역에서 개인 줄풍류로 전승되던 광주향제줄풍류의 전통을

잇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풍류음악의 대표적인 기악곡인 '영산회상'을 연주한다. 다스름을 시작으로 상령산, 중령산, 세령산, 가락달이, 상현도드리, 도드리, 하현도드리, 염불도드리, 타령을 선보인다.

피리 신경환·이초룡, 대금 정성수·채광자·김희동, 생황 신선민, 해금 고영란·이유정·김미정·김경민, 거문고 박혜정·장보아, 가야금 이화림, 양금 김미혜, 단소 최호, 장단 박상호 등이 출연한다. 무료관람. 문의 062-226-8531.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바이올리니스트 양새미 독주회

7일 유·스퀘어문화관

바이올리니스트 양새미(사진) 독주회가 오는 7일 오후 7시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초·중·고교 시절 호남예술제에서 최고상을 4번 수상한 양새미는 중학생 때 광주시립교향악단과 협연할 정도로 뛰어난 기량을 보였다. 호주 퀸즐랜드 국립음악원에서 장학생으로 공부한 뒤 동 대학원에 진학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미국 신시내티 음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저서로는 '바이올린 에튀드 연습하기 1'이 있다. 그는 서울 금호아트홀에서 귀국 독주회를 가진 뒤 체코 아나체크 발하모니 오케스트라, 독일 뉴른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협연 등을 열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전남대 겸임교수를 역임하고 현재 목포대에 출강하고 있다.

양새미는 이날 독주회에서 베토벤 '바이올린



소타나 1번'과 클룩·크라이슬러의 '멜로디', 디니쿠·하이페츠의 '호라 스타카토', 스트라빈스키의 '이탈리안 모음곡' 등을 선보인 뒤 사라사테의 '플라 이어라'로 무대를 마친다.

이번 무대에는 대관령 국제음악제 상임 반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홍지영이 협연한다.

전석 2만원(청소년 1만원). 문의 010-6331-6834.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고통과 슬픔의 미학, 봄 햇살처럼 환한 상상력으로

광주일보 신춘문예 등단 김선태 시인 '햇살 택배' 펴내

"마음은 아직도 무거운 시간을 내려놓지 못했다. 애써 밝히려는 표정의 배후에 어둔 그림자가 여전하다. 벌써 이순이 눈앞이다. 이전 봄 햇살처럼 환한 시간 쪽으로 가닿고 싶다. 그래도 마음이어, 어두운 기억 속에서 꽃이 피길 바란다."

광주일보 신춘문예와 현대문학으로 등단한 김선태 시인(목포대 국문과 교수)이 신작 시집 '햇살 택배' (문학수첩)을 펴냈다.

지난해 사랑시집 '한 사람이 다녀갔다'를 발간한 지 일 년 만에 펴낸 작품집에는 기존의 시와는 달리 밝은 느낌과 동적인 느낌의 시들이 다수 수록돼 있다.

저자가 '시인의 말'에서 "벌써 이순이 눈앞이다"라고 말한 데서 보듯, 고통과 슬픔의 미학을 "봄 햇

살처럼 환한" 상상력으로 전환한 작품들이 눈에 띈다. 아마도 '이순(耳順)'이라는 나이가 주는 의미와 맞물린다. 공자는 나이 예순을 가리켜 '이순'이라 했는데, 어떤 말도 원만히 포용할 수 있다는 뜻이 전해져 있다.

"겨우내 출고 어두웠던 골방 창틀으로 누군가/ 인격적도 없이 따스한 선물을 밀어 넣고 갔다// 햇살 택배다// 감사의 마음이 종일토록 눈부시다"

표제시 '햇살 택배'에는 비록 시적 공간은 '골방'이지만 전체적인 시의 분위기는 밝고 환하다. "인기척도 없는 따스한 선물"이 택배로 배달됐기 때문이다. 이 선물을 받은 화자는 "감사하는 마음이 종일토록 눈부시다"라고 노래한다.



모두 '이순'을 눈앞에 둔 시인의 심상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낚시'라는 시에서도 이러한 느낌을 엿볼 수 있다. 화자는 "마음의 심연에 낚시를 드리운다/ 낚당 없이 이순(耳順)의 물고기

가 물고 늘어진다"며 이제까지와는 달라진 밝음의 시

학을 깊이있는 시선으로 펼쳐낸다.

홍용희 문학평론가는 "마음공부에 대한 체험적 서사다"며 "김선태는 이러한 이순의 경지를 생활철학으로 내면화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평한다.

한편 강진 출신 김 시인은 '간이역', '동백숲에 길을 묻다' 등의 시집과 '풍경과 성찰의 언어', '진정성의 시학' 등의 평론집을 펴냈으며 '영랑시문학상', '시작문학상'을 수상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호남기록문화유산 강연집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 4' 출간

호남기록문화유산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 기획된 시민강좌와 해설집을 책으로 묶은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 4'가 출간됐다.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 1, 2, 3권에 이어 4번째로 출간된 책은 지역문화교류호남재단(이사장 백수인)과 호남지방문화연구소(소장 김대현 전남대 교수)가 기획했다.

책에는 '호남, 인문에 말을 걸다4'에서 발표된 6명의 강연과 부록으로 호남기록문화유산에 대한 부분별 해설이 수록돼 있다. 6개의 강좌는 '전라도 천년, 오매! 참말로 정하고 오지게 살았네!!'(김화성 전 동아일보 기자), '호남, 새로운 천년을 열자'(문안식 동아사이 역사문화연구소장), '호남문화의 이해와 속살'(최한선 전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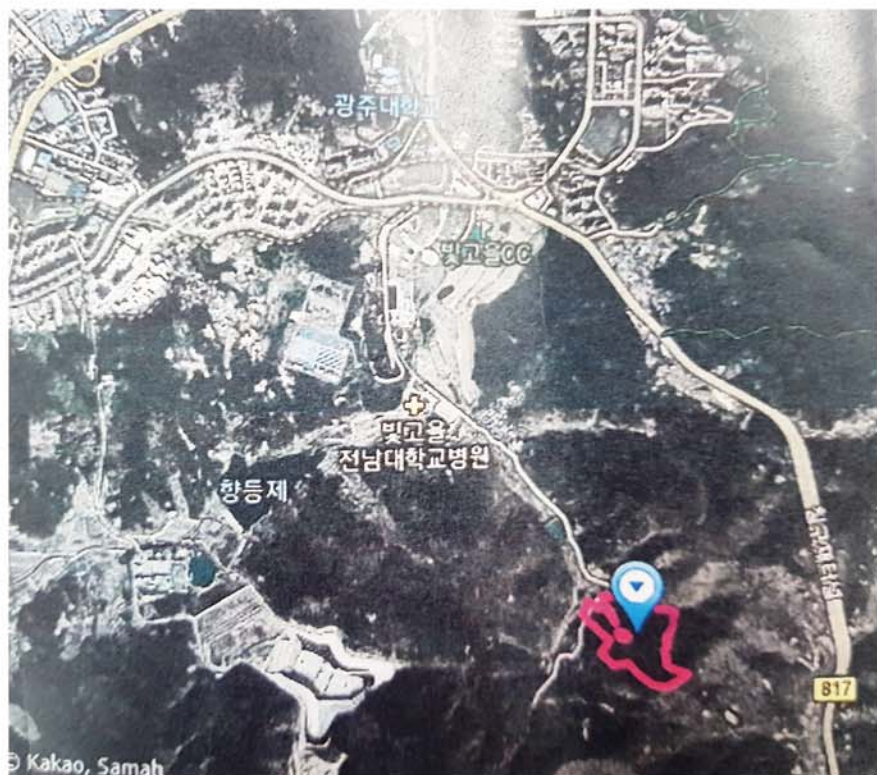


이다.

또한 부록에는 호남지역의 문집과 문중문헌, 금석문, 고문서 등 각 부분별 해설과 연구내용이 담겨 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 덕남동 임야, 투자가치 좋습니다.



- 광주광역시 남구 덕남동 산72번지
  - 임야 22600평중 나머지 2050평, 공유지분 원하는 평수만큼 매매가능 (200평 이상)
  - 도시지역, 자연녹지
  - 인접토지 맹지도 15만원에 매매 되고 있음(산64-21번지)
  - 매매 - 평당 17만원 (일시불 완불시 조정가능)
- 문의. 010-6834-7400